

NFC 센서를 이용한 버스 하차 알림 서비스

1. 기본적으로 버스 하차 시 진동 혹은 알람이 울리게 해 이용자에게 하차 지점임을 알려줌
2. 이용자는 버스 탑승 시 교통카드를 찍고(서버와 연결) 앱으로 자신의 하차 지점을 지정
3. 하차지점 1km 전, 500m 전, 100m 전에 이용자에게 알려줌
4. 교통카드를 찍고 내리면 연결이 해제됨
5. 예를 들어, 어린 아이가 탑승하고 버스에서 카드를 찍고 내리게 되면 부모에게 메시지 전송
6. 교통카드에는 카드 고유의 id가 지정됨, id에는 버스의 정보, 이용자의 정보가 들어있음
7. 교통카드에는 NFC 센서를 부착, 서버와 연동
8. 라즈베리 파이 ultrasonic sensor (?)를 이용해 정류장과 버스간 거리 측정